

“소통·화합·존중·배려’로 정 쌓아갈 수 있도록 노력”

광주지역 아카데미 첫 여성 원우회장 박정연 도경건설 대표

‘여성’ 아닌 ‘인간 박정연’...6기부터 만나는 원우들 기대 부응할 것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9기 회장... “모두가 소중한 인연 되길”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는 최근 특별한 원우 회장을 맞이했다. ‘최초의 여성 원우회장’으로 이름을 올린 박정연(48·도경건설 대표) 제9기 원우 회장이다.

취임 소감을 통해 “모든 원우가 소통하며 화합하고 존중과 배려로 정을 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박 회장. ‘소통·화합·존중·배려’라는 단어에는 그가 올 한 해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에서 이루고 싶은 모든 소망이 담겨 있었다.

“사실 겁도 많이 났습니다. 그동안 원우회장은 연륜이 있는 분들이 맡아 왔는데, 40대인 제가 중책을 잘 해낼 수 있을지 두려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젊은 피로서, 여성으로서 원우들을 이끌고 싶다는 마음도 컸습니다.”

지난 2013년 도경건설을 창업한 뒤 광주 지역을 대표하는 여성CEO로 활동 중인 박 회장이지만, 그조차도 ‘첫 여성 원우회장’으로 첫 발을 내

딛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박 회장은 “나도 모르게 남성중심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다”고 돌아봤다.

“회장이 되기 전, 딸과 대화를 나누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람의 그릇은 인간 대 인간으로 판단하지, 남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면서 ‘엄마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회장으로 추천해준 모든 분들도 ‘여자 박정연’이 아닌, ‘인간 박정연’을 인정해 준 것임을 깨달았죠. 그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6기부터 9기까지 3년여 동안 원우들을 만나 왔던 박 회장은 올해 편한 한 분위기에서 소통하고, 소외되는 이 없이 다 함께 어울리는 원우회를 만들기 약속했다. 일단 수십명 원우들이 한 자리에서 어울리기가 어렵다는 문제부터 해결하고자 했다. 반(班)에서 반으로, 반에서 전체로 점진적으로 교류 범위를 넓혀 모든

원우들에게 만남의 계기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남성·여성, 나이, 경력력 등 격차가 생기면, 마음도 멀어질 수 있어요. 그 마음의 거리를 존중과 배려로 좁혀서, 모두가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스스로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9기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반갑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 회장은 “처음 맡아보는 원우회장직이라 서툴고, 많이 부족하기도 하다. 원우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제9기 원우들이 졸업 후에도 서로 돕고, 교류하며 함께 발전하는 관계를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준 남편 신현국(도경건설 대표)씨에게도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회장이 운영하는 도경건설은 현재 국내 자연환경에 알맞는 ‘한국형 도로포장’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아스팔트에서 발생하는 ‘포트홀’을 저감시킬 수 있는 ‘보온덤프트’를 개발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출원·등록한 특허만 34개로, 지난 2018년에는 제53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이정후 대이은 나눔 실천, 광주 신애원에 500만원 기부

키움 히어로즈의 이정후가 대를 이어 이웃사랑에 나섰다.

광주 신애원은 6일 “이정후 선수가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신애원은 이정후의 아버지인 이종범 LG 코치가 프로에 입단한 1994년 해태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곳이다.

이종범 코치는 KIA 선수시절에 신애원 원아들은 광주 구장으로 초청해 경기 관람 행사를 진행했다. 일본 무대에서 활약하고 귀국한 2001년에는 자신이 직접 사용한 유니폼과 배트에 친필 사인을 해, 아이들에게 전달하며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어머니 정정민씨도 꾸준한 아이들을 위한 기부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정후도 어린이날을 맞아 많은 의미가 있는 광주에 후원금을 보내며 대를 이어 나눔을 실천했다. 이정후는 광주 서석초에서 야구를 시작해 현재는 키움을 넘어 KBO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발돋움했다.



이종범(오른쪽)·이정후 부자

신애원 김요셉 원장은 “코로나19로 이정후 선수가 직접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기부 덕분에 아이들이 보다 즐겁고 행복한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었다”며 “야구 실력만큼 나눔도 대를 이어 실천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조선대병원 주선옥 수간호사, ‘보건의 날’ 국무총리 표창

2021년도 제49회 보건의 날을 맞아 최근 조선대병원 주선옥 수간호사가 코로나19 대응 및 병원 감염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주선옥 수간호사는 안전한 환경에서 코로나19 환자의 간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음압격리병실 점검 및 관리, 병원 내 담당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등에 힘쓰면서 성공적 초기 대응에 일조했다.

특히 고압산소치료기, 인공호흡기, 인공신장투석기 등의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중증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철저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위급한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했다. 호남, 대구, 경북, 경기 지역 등의 중환자들을 회복시켜 일상으로 복귀하게 하는 등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주선옥 수간호사는 “이러한 성과를 이루기까지 아낌없이 지원해 준 정종훈 병원장을 비롯한 교직원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서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75병동 간호사들과 함께 일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코로나로 지친 마음 ‘색소폰 연주’로 위로

지적장애인 임은규 가족사랑 음악회, 8일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제 색소폰 연주로 코로나 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전문 색소폰 연주자가 된 임은규(29·사진)의 가족사랑 음악회가 오는 8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 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는 ‘cheng fu’, ‘amore sin fin’, ‘besame mucho’, ‘recado bossanova’ 등 다양한 곡을 들려주며, 재즈 피아노 강윤숙, 기타 이관우, 드럼 윤영훈, 키보드 이상관, 보컬 김덕훈, 색소폰 황태룡 등도 무대에 오른다.

지적장애 3급을 가진 임은규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케니 지의 색소폰 연주를 보고 색소폰 연주에 빠졌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대금, 단소 등 다양한 악기를 배웠지만 오래 연주하지 못했다”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케니 지 무대를 보고 반해 색소폰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취미로 색소폰을 연주해오던 그는 2010년 호남신학대에 진학해 박수용 교수를 사사하면서 본격적인 연주자의 길로 접어들었고 지금은 호남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 임씨는 25회 전국 학생 음악경연대회 3위, 제1회 대한민국아마추어 색소폰 콩쿨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고 지금까지 여러 무대에 오르면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현재 공연 준비에 한창인 그는 완벽한 무대를 위해 하루 4시간씩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 혼자만이 아닌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부담이 커요. 그래도 제 모든 것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제 유일한 친구



가 색소폰인 만큼 친구와 함께 잘 놀고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는 앞으로 전문 연주자로서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음악으로서 전달해주는 역할과 소외계층에 먼저 다가가는 문화 전도사로 활동할 계획이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자는 희망을 연주로 전하고 싶습니다. 또, 장애인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유튜브로도 생중계 하니 더욱 많은 분들이 제 연주를 듣고 희망과 기쁨을 얻길 바랍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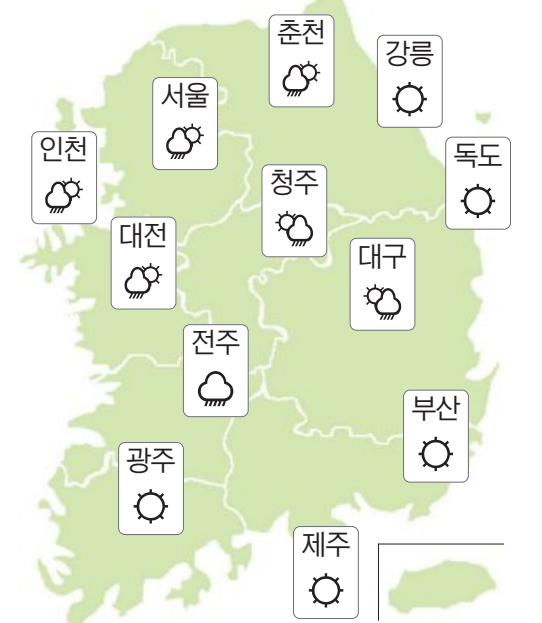
해돋이	05:36	달뜨기	03:33
해지기	19:23	달지기	15:12

모래바람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14/22	보성	맑음	10/22
목포	맑음	15/20	순천	맑음	12/22
여수	맑음	14/21	영광	맑음	14/20
나주	맑음	12/21	진도	맑음	14/21
완도	맑음	14/22	전주	비	14/22
구례	흐려져비	10/22	군산	구름맑음	12/19
강진	맑음	12/22	남원	구름맑음	11/22
해남	맑음	13/21	흑산도	맑음	14/18
장성	맑음	11/21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0.5~2.0	0.5~1.5		
	면바다(북)	1.5~3.5	1.0~3.0		
남해서부	앞바다	0.5~2.5	1.0~2.0		
	면바다(서)	1.5~2.5	1.0~2.0		
남해동부	앞바다(서)	0.5~1.0	0.5~1.5		
	면바다(동)	1.0~2.0	1.0~2.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4:24	11:37	17:05	--:--
여수	00:10	06:46	12:51	18:59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관심	보통	나쁨

◇주간 날씨

8(토)	9(일)	10(월)
10/24	11/23	12/25
11(화)	12(수)	13(목)
15/25	16/25	14/26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알림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급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연제는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을,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을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 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 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정의입관용 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 ▲지적장애인 성인 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인터넷 등) 062-525-1195.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홍탁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 결손가정 아동, 경제적 사정, 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

- 움이 있는 3세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222-1095,1096.
- 모집
 -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 모집=사·군·구 지부모집, 한국지매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던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

- 511-0030.
-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년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아 모집, 실버제조, 차매에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351-1206.
-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글,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